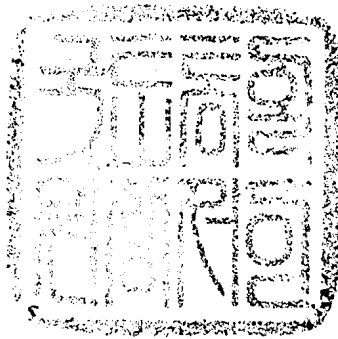


3531

820.911

社會主義諸國 및 北韓經濟狀況 變化와 韓半島統一與件

1986. 12.



서울대학교도서관
북한경제현황.
동일한경.
북한경제정책
동일한경.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目 次

1.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狀況 變化와 經濟改革.....	2
가. 社會主義諸國의 經濟狀況 變化.....	2
나.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理論的 基礎와 限界.....	7
다. 經濟改革 實態와 展望	13
2. 北韓經濟現實과 經濟改革 可能性.....	26
가. 對內經濟實態.....	26
나. 對外經濟關係.....	33
다. 經濟改革의 可能性.....	43
3. 北韓經濟狀況 變化와 統一與件.....	51
가. 經濟改革과 理念 및 政治·社會體制 變化.....	51
나. 對外經濟協力과 外交的 與件 變化.....	56
다. 韓半島 統一與件 變化 展望.....	58
4. 統一政策의 考慮要素 및 政策方向.....	62
가. 基本的인 考慮要素.....	62
나. 政策方向.....	63

1. 社會主義諸國의 經濟狀況 變化와 經濟改革

가. 社會主義諸國의 經濟狀況 變化

(1) '50年代 狀況

- 蘇聯 및 東歐諸國은 初期 社會主義化 段階에서는 大部分의 國家가 鐵鋼, 電力, 機械工業 等 重工業 發展을 中心으로 資本主義體制의 西方國家를 능가하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음 (表 1 參照).
- '50年代中 社會主義諸國의 工業成長率은 國家別로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유고의 年平均 9.9%로부터 불가리아의 14.7%에 이르는 高度成長을 維持, 西方諸國中 日本을 除外하고는 EEC諸國이나 美國의 工業成長率을 顯著히 능가하였음 (表 2 參照).
- 東歐諸國의 이러한 高度成長은 2次大戰 以後 蘇聯으로부터 模倣된 스탈린型 工業化 모델을 바탕으로 開發初期의 社會·經濟的 與件이 資本, 勞動, 土地 等 生産要素의 量的 投入 爲主의 粗放的 成長戰略 追求가 可能했던 結果임 (表 3 參照)

- 嚴格한 計劃과 完全保護下의 輸入代替 工業化에 注力
- 높은 投資率, 完全雇傭, 價格安定 등의 維持

○ 그러나 '50年代中 東歐諸國의 經濟는 高率의 量的 成長에도 不拘하고 質的인 面이나 經濟管理의 效率性面에서 많은 問題點이 胎動되었음.

東歐諸國의 '50年代 工業總生産 成長 推移

(表 1)

(單位 : %)

國家 年度	불가 리아	체코	東獨	헝가리	폴란드	루마 니아	蘇聯	유고
1951	19	14	23	24	22	24	16	-7
1952	16	18	16	21	19	17	12	-2
1953	15	9	12	12	17	15	12	13
1954	11	4	10	2	11	6	13	15
1955	8	11	8	9	11	14	12	15
1956	15	9	6	8	9	11	11	9
1957	16	10	8	16	10	8	10	17
1958	15	11	11	11	10	10	10	11
1959	20	11	12	10	9	10	11	13
1960	12	12	8	12	11	16	10	15
年 平 均	14.7	10.9	11.4	10.9	12.9	13.1	11.7	9.9

資料 : 國土統一院, 東歐諸國의 經濟改革過程, '76. 12.

工業成長率의 東·西間 比較

(表 2)

(單位：%)

國別 期間	東 歐 8 個國	EEC	日 本	美 國	英 國	世 界
1951 - 1955	14	9	18	5	4	7
1956 - 1960	10	7	17	2	3	6

資料：上掲書， P.6.

東歐諸國의 投資·消費·國民所得增加率

(表 3)

(1950 年을 100 으로 한 1959 年 指數)

國別 區分	불가 리아	체 코	東獨	헝가리	폴란드	루마 니아	蘇聯	유고
投 資	367	262	414	170	244	336	307	212
消 費	183	161	160	159			173	
國民所得	264	192	242	162	199	241	246	197

資料：上掲書， P.12.

(2) '60 年代以後 狀況

- 東歐諸國은 '50 年代以前的 高度成長趨勢와는 달리 '60 年以後 工業化가 一定段階에 到達하면서부터 經濟成長 增加率은 每年 鈍化되는 局面으로 進入 (表 4,5 參照)

- 특히 '80年代의 경우 一部 東歐 國家들의 經濟는 負의 成長을 記錄하는 趨勢로 急變하였음.
- 한편 對西方 經濟協力の 必要性 增大로 '60年以後 東歐諸國의 輸出入中 對西方 先進國 貿易比重은 漸次 增大됨.
- 1960年의 對西方 先進國 貿易比重이 輸出 21.1% 輸入 22.8%에서 1976年엔 각각 25.9%와 34.5%로 增加

社會主義諸國 GNP 推移)

(表 4)

(單位 : 10 億弗)

年度 國家	1960	1965	1970	1975	1980	1983
불 가 리 아	21.9	30.0	38.4	48.3	50.6	53.8
체 코	67.5	75.9	89.9	106.0	117.8	120.8
東 獨	82.8	95.8	111.8	132.5	148.7	154.8
헝 가 리	38.8	47.1	54.7	64.3	71.1	71.8
폴 란 드	101.1	125.9	153.2	209.8	217.4	212.3
루마니아	38.1	49.4	62.8	86.9	105.5	109.7
蘇 聯	758.6	904.9	1,246.5	1,536.8	1,720.3	1,843.4
유 고	36.3	50.6	68.7	92.2	121.2	122.3

資料 :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社會主義諸國 經濟成長 推移

(表 5)

(單位：%)

國家 \ 期間	61-65 平均	66-70 平均	71-75 平均	76-97 平均	1980	1981	1982	1983
불가리아	6.5	5.1	4.7	2.0	-3.1	3.0	3.3	0
체코	2.4	3.4	3.3	2.1	0.5	-0.6	1.5	1.7
東獨	3.0	3.1	3.5	2.4	2.1	2.1	0	2.0
헝가리	4.0	3.0	3.3	2.3	1.0	0	1.4	-0.4
폴란드	4.5	4.0	6.5	1.5	-2.4	-5.3	-0.6	3.8
루마니아	5.3	4.9	6.7	5.4	-1.7	0.5	2.4	1.1
蘇聯	3.6	6.6	4.3	2.6	1.2	1.8	2.0	3.2
유고	6.9	6.3	6.1	6.5	2.3	1.4	0.7	-1.2

資料：上掲書 資料를 利用하여 算出

나.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의 理論的 基礎와 限界

(1) 理論的 基礎와 特徵

(가) 理論的 基礎

- 社會主義 經濟體制은 “마르크스”의 再生産理論인 “社會的 再生産의 合法則性”에 根據하고 있는바,
 - 社會主義에서의 生産關係 發展은 항상 生産力의 發展을 앞지르기 때문에 兩者사이의 矛盾은 排除되며
 - 社會主義下에서는 個人的·集團的 및 社會的 利害關係에 있어서나 相異한 階級과 社會集團間에는 深刻한 矛盾이나 敵對的 矛盾은 存在하지 않음.
 - 商品·貨幣關係는 本末的인 것이 아니며, 勞動은 直接 社會的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商品生産에 個別的으로 支出된 勞動의 社會的 必要性을 市場機構를 통한 檢定도 不必要함.
 - 社會主義社會는 社會的 生産이 無條件的으로 支配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的 部門間이나 個人的 部門間에 市場機構를 통한 競爭은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社會主義的 生産關係下에서의 生産勞動者는 社會의 勞動資源이므로 中央集權的 管理對象이 되는 한편, 資源은 그 本性이 手動的이기 때문에 勞動資源으로서의 “人民”들에게 自發的인 積極性을 期待할 수 없으며
- 經濟活動에서는 物質的인 慾求를 刺戟하는 動機가 絶對的으로 필요하지만 動機賦與自體는 實際로 매우 複雜하기 때문에 오히려 社會的 및 精神的 動機가 本質的인 役割을 한다는 것 등임.

(나) 特 徵

- 社會主義諸國은 이상의 “社會的 再生産의 合法則性”에 따라서 中央集權的 計劃 管理體制가 採擇되어 왔음.
 - 經濟管理方式에 대한 行政管理方式의 優位
 - 分權的인 方式보다 中央集權的 管理方式의 優位
 - 市場機能보다는 計劃機能의 重視
- 그 體制的 特徵을 要約하면
 - 經濟的 意思決定機能의 高度 中央集權化와 生産·分配·消費 等 計劃의 指令的 性格

- 勞動에 대한 諸般形態의 物質的 刺戟도 中央에서 直接 規制
- 地域的 管理보다 部門別 管理原則의 優先 및 業務의 行政官署別 分離
- 企業經營活動에 있어서 經濟的 權限의 制限
- 生産·流通·서비스 등 諸分野에 있어서 住民들의 非公式的 經濟活動을 制限하는 것 등임.

○ 따라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는 市場的 諸經濟關係의 發展이 脆弱하다는 制度的이고 構造的인 脆弱點을 內包하고 있음.

- 社會的 價値와 價格의 不一致
- 企業에 대한 資材나 設備供給의 中央管理로 인한 生産財 市場의 缺如
- 利潤動機의 不在
- 企業經營成果에 대한 責任所在의 不明確 등

(2)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的 限界

(가)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初期 適應與件

○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下에서의 東歐諸國이 社會主義

化 初期段階에서 高度成長을 達成할 수 있었던 것은 社會主義 中央集權的 經濟體制的 優越性보다는 當時의 社會經濟的 與件에 起因하였음.

○ 이를 要約하면

- 첫째, 社會主義的 生産의 物的, 技術的 基盤이 되는 勞動의 社會化가 낮은 水準에 있었고
- 둘째, 各 經濟部門間, 地域間, 企業間的 關聯은 比較的 單純한 關係로 中央計劃에 의해 쉽게 調整이 可能했으며
- 셋째, 工業勞動者의 대부분은 權利意識의 缺如 및 낮은 工業化水準으로 職場選擇範圍가 극히 制限되어 있어서 管理가 容易하였고
- 넷째, 特히 潛在的, 構造的 剩餘勞動力이 豊富, 失業에 대한 두려움, 住宅不足 및 居住移轉의 制限 등으로 勞動力의 動員은 最低 生計費를 支給하는 선에서 可能하였음.

○ 이러한 社會·經濟的 與件에 따라 初期 社會主義化 過程에서는 經濟的 貧困이 社會的 權利나 政治的 自由를

追求하기에는 너무 가혹, 黨의 政治的·經濟的 獨裁
가 可能하였으므로 勞動과 資源의 強制的이고 集中
的인 動員에 의해 高度成長이 可能하였음.

(나) 與件變化와 體制的 限界

- 初期 成長過程을 통해 社會主義諸國은 經濟規模의
增大와 質的 向上 등은 달성했으나 그로 인해 政治·
社會的 與件的 變化에 直面함.
- 이를 經濟計劃과 調整의 面에서 보면
 - 國民經濟의 部門構造나 行政機構 및 地域構造가
複雜化됨으로써 中央計劃으로 國民經濟를 效果的으
로 調整할 수 있는 條件이 惡化되었고
 - 그 結果 地域間, 經濟部門間 不均衡이 深化되어 社
會主義的 商品, 貨幣關係의 特殊한 性格이란 命題
는 理論的 說得力을 喪失 하게 되었음.
- 勞動管理 與件面에서는
 - 勞動者의 教育和 文化水準의 向上, 勞動者가 接할
수 있는 情報量의 增大로 社會的 意識과 權利意
識이 提高됨으로써 勞動者들의 慾求是 經濟的인 것
이외에 보다 높은 社會的·精神的 要素를 內包하게 되
었고

- 個別 勞働者가 稼動하는 生産手段의 量的·質的增
大로 生産寄與度 및 影響力이 提高됨에 따라 勞
働者는 보다 複雜한 管理對象으로 轉變 하였음.
- 이상의 諸 與件變化로 中央集權的 計劃과 生産管理
體制는 效率性이 低下됨으로써 經濟成長鈍化의 根本
的인 要因으로 擡頭됨.

다. 經濟改革實態와 展望

(1) 概 況

- 中央集權的 經濟計劃의 矛盾이 露呈됨에 따라 社會主義諸國은 經濟發展과 技術向上 및 國民生活 水準의 向上을 達成하기 위한 經濟의 質的 改革에 대한 必要性을 절감하게 되었고
- 특히 2次大戰以後 共產化된 東歐諸國은 蘇聯이나 中共과는 달리 構造的으로 對外指向的이었으며, 歷史的, 社會的 背景의 相異로 蘇聯型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모델의 缺陷이 蘇聯보다 심하게 露出됨으로써 그 批判이 提起되었음.
- 따라서 '50年代의 高度成長段階에서도 이미 一部國家에서는 價格修正과 經濟運營 및 制度面에서의 調整이 시도되었으나 당시 調整內容은 유고를 除外하고는 經濟改革으로 評價할 정도에는 未洽 하였음.
 - 1948年 유고가 Cominform 離脫
 - 유고(1950 ~ 1952), 헝가리(1953 ~ 1954), 체코(1953

○ 1970 年代以後 東歐諸國은 經濟的 效率性을 向上시키
기 위해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大幅 修正하는
改革을 斷行 하였으며 특히 毛澤東事後 鄧小平의 實用
主義 路線에로의 轉換과 함께 中共은 全面的인 經濟
改革에 着手함으로써 經濟改革 趨勢는 全體 社會主
義諸國으로 擴散 됨.

- 루마니아는 1970 年代末 새로운 經濟改革 着手
- 유고는 企業의 意思決定에 國際市場價格, 市場메카니
즘, 金融의 役割을 더욱 強化
- 東獨, 체코, 불가리아도 새로운 經濟改革 着手

(2) 蘇聯의 經濟改革

(가) 1960 年代 經濟改革(1965 ~ 1969)

1) 改革案 採擇過程

- 리벨만(E. Liberman)의 提案에 따라 1965. 9. 蘇
聯共產黨 中央委員會에서 코시킨 首相이 提議한
“工業管理 및 計劃化의 改善과 工業生産의 劃期
的 強化에 대하여”란 決議案을 採擇 하고

~ 1954), 東獨(1954 ~ 1955), 폴란드(1956 ~ 1958)等

이 改革 試圖

- 蘇聯은 1956年 第20次 共産黨大會에서 “社會主義에 대한 獨自路線”을 公式 認定
- 1950年代末과 1960年代初 蘇聯을 包含한 東歐 工業國家들의 經濟的 投資收益性的 減少와 成長鈍化, 農業의 不振, 生産財와 消費財의 심한 不足現象 等 經濟改革의 必要性이 提高됨으로써 1960年代 中半以後 各國別로 經濟改革은 深化, 擴散되었음.
- 蘇聯은 1965. 9. 共産黨 中央委員會에서 經濟改革에 관한 決定 採擇
- 東獨은 1960年代末부터 企業統合과 企業 聯合化의 強化
- 루마니아는 1967.12부터 部分的 分權化 試圖
- 헝가리는 1968. 中央當局으로 부터 指令되던 具體的이고 物量的인 計劃體制를 撤廢
- 유고는 1965(實際 '64~'67), 企業 自律權의 賦與等 大幅的인 改革 推進

- 1965. 10. 蘇聯邦最高會議에서 이를法律로 採擇
公布하는 한편
- 蘇聯邦 閣僚會議에서는 “社會主義 國營工業企業에
관한 規定”을 承認(1966. 1. 1 實施)함으로써
經濟改革에 착수하였음.

2) 基本方向

- 計劃·管理方式과 物質的 補償提高를 위한 基本方
針으로서
 - 經濟計劃에서 資源利用의 效率性 保證
 - 科學技術의 最新成果를 工業部門 生産過程에 신
속히 導入
 - 長期 展望計劃의 役割提高
 - 計劃立案을 위해 科學的인 “노르마”體系 導入
등을 설정하고
- 企業이나 企業合同(Combinat)의 經營에 自主성과
主導權을 擴大 하며
- 獨立採算制의 強化發展으로 價格, 利潤, 賞與金, 信
用 等手段을 利用, 經濟的 자극을 強化하였음.

3) 具體的인 措置

- 計劃指標의 大幅 縮小 및 整理
 - 中央에서 企業에 下達되던 40 餘個 指標를 8 個로 整理
- 企業利潤中 企業積立分을 提高시키고 이의 自體活用을 許容하여 社會, 文化, 住宅, 보너스 및 生産擴張 基金으로 使用
- 投資金融과 利潤의 國庫納入制度의 根本的 改編
- 技術進步와 國民經濟 效率性 提高를 위한 刺戟手段으로 價格役割 強化
 - 都賣價格 改正
- 工業管理機構의 改革

(4) 1970 年代 産業構造 改編 (1971 ~ 1978)

- 60 年代의 經濟改革 措置結果 一部 否作用 發生으로 새로운 修正을 試圖
 - 企業의 物質的 獎勵基金 分配規定의 嚴格化

- 經營者에게 부여하였던 企業生產基金 使用權限의 制限
- 中央統制指標의 增大 等

(다) 1980 年代 新經濟改革 (1980 ~)

- 1981 年 行政構造 改編 및 1982 年 都賣價格 改正 措置
- “안드로포프”의 經濟改革 實驗 (1984. 1. 1 施行)
- “고르바초프” 改革措置
 - 企業의 自主性 強化로 原料購入, 設備投資 等を 企業에 委任하는 한편, 原料購入, 消費財生產 등에서 生産企業間 및 商業機關과의 契約制度 強化, 消費財 生産部門의 地方分權化 等
 - 勞動意慾 向上을 위해 賃金水準을 生産성에 연동시키는 등 賃金制度和 消費財 및 서비스部門의 強化
 - 價格의 合理化 (2 ~ 3 年마다 價格 再調整) 等 推進

(3) 中共의 經濟改革

(가) 改革經過

- 中共黨 第 11 次大會 (1977. 8) 에서 自力更生原則의 포기와 적극적인 開放政策 採擇
- 第 5 期 全人代 1 次會議 (1978. 2) 에서 “ 4 大 現代化 ” 政策을 政府 公式立場으로 採擇하고 2,000 年까지의 청사진 提示
- 第 11 期 3 中全會 (1978. 12) 에서 農業生產 請負制 및 人民工事 改編 決定
- 第 5 期 全人代 3 次會議 (1980. 9) 에서 合作企業에 관한 企業登錄法, 勞動法, 所得稅法 等 採擇
- 第 5 期 全人代 5 次會議 (1982. 12) 에서 新憲法을 採擇, 人民工事 改編 및 農民의 自留地 認定 等を 憲法으로 保障
- 中國共產黨 12 期 3 次會議 (1984. 10) 에서 經濟體制 改革案을 發表, 資本主義 市場經濟原理 導入

(나) 改革의 基本原則

- 個人의 創意와 利潤追求를 許容함으로써 生産意慾을 鼓吹하고 經濟的인 效率性を 提高
- 企業의 獨自的 經營權을 保障, 黨과 政府의 不必要한 干涉과 支援을 排除하며, 個別企業의 生産, 價格, 賃金에 관한 決定權을 國家에서 企業으로 移讓
- 經濟管理에서 政府와 企業, 個人에 대한 基本的인 役割 定立
- 經濟關係와 經濟活動 準則을 法律로 制度化
- 先進技術과 資本導入을 爲해 對內的 與件을 造成하며, 對外開放政策 樹立, 實施

(다) 改革의 主要內容

- 農業生産 請負制 實施
 - 1979 年부터 實施, 5 年間の 暫定期間을 거쳐 1984 年에 그 實施期間을 15 年間 延長
- 企業管理制度 改善(分權的 管理制 實施)

- 1979年7月, 國營企業의 經營管理 自主權 擴大에 관한 規定을 制定, 實驗的 實施
 - 1981년부터 經濟責任制로 불리우는 本格的인 企業 改革 着手
- 價格體系의 合理化
- 商品價格의 統一的 管理는 계속하되 價格管理體系를 計劃的 調節과 市場調節을 結合한 混合的 調節原則 導入
- 流通體系의 改革
- 1983년부터 段階的인 流通體系 改革着手
 - 市場需要를 勘案, 企業의 追加生産 및 追加生産分의 自體販賣 許容
- 財政 및 金融制度 補完
- 中國 人民銀行 等 各種銀行 新設 及 金融體系 整備
 - 中央과 地方財政은 收入에 따라 支出을 責任지게 하고 財政管理에 企業利潤 加算
 - 基本建設投資를 政府出資에서 銀行融資로 轉換

○ 對外開放의 促進

- 外國과의 經濟合作, 外國人投資 許容, 借款導入, 貿易擴大 等 積極 推進
- 4 個 經濟特區 및 14 個港을 中心으로 한 經濟開發區 設定, 開放
- 貿易管理體制의 地方分權化 圖謀

(4) 中·蘇 經濟改革의 長期展望

(가) 1986 年中 中·蘇의 動向

○ 中共은 經濟改革 過程에서 發生된 一部 否定的인 問題點에도 불구하고 各種 後續措置를 단행, 經濟改革 加速化

- '86. 3. 全國 人民代表者 會議에서 企業破產法 制定
- '81 年以後 一部地域에서 實施해 오던 勞動者 契約制를 '86 年부터 全國적으로 實施
- 證券去來所 및 어음交換所 新設 및 擴大
- 國營產賣店, 食堂, 理髮所, 沐浴湯 等の 個人賃貸 實施 및 競賣措置 斷行

- 國際關係 및 理念的인 面에서도 “마르크스·레닌”
理論의 批判과 修正立場 堅持
 - 北京 “리뷰”誌는 資本主義 國家들간에는 戰爭이 불가피하다는 “레닌”理論의 排擊을 主張 (’86.6.10)
 - 趙紫陽 首相은 아시아·大平洋地域 經濟會議 演說에서 地域內 相互 經濟協力 推進을 위해 理念과 社會體制를 초월, 相對方을 政治的으로 尊重해야 한다고 闡明

-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路線에 따른 實質的인 改革措置에 着手
 - “고르바초프”는 第27次 共產黨大會(’86. 2.25~ 3.6) 演說에서 더이상 部分的인 改革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보다 急進的인 改革의 必要性 強調
 - ’86. 3. 集團農場의 自律權 擴大
 - ’86. 7. 個人所得 隔差의 公式認定, 西方과의 合作 企業 許容
 - ’86. 8. 蘇聯 貿易銀行, 國際資本市場 債權引受團 參與 및 IMF, IBRD, GATT 등 加入 推進

- '86. 9. 國營企業體의 輸出入 自律權 許容
- '86. 11. 蘇聯邦 最高會議가 個人經濟活動을 部分的으로 許容하는 새로운 法案 通過(29個 業種 明示)
-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計劃經濟 基本原則의 維持, 自由市場과 私有財產 觀念의 排除 等を 闡明, 經濟改革에 限界 設定

(나) 展 望

- 中共은 經濟改革 過程에서 發生된 物價, 失業, 外債 增大, 經濟犯罪 等 所謂 資本主義的 弊害要素의 克服 問題가 하나의 抑止的 要素로 作用할 可能性이 있으나 社會主義 國家中 가장 急進的인 改革이 持續 될 것이 展望됨.
- 특히 社會主義 基本原則이나 理念의 不拋棄 闡明에도 불구하고 私的 經濟領域의 擴大와 部分的인 私 有財產의 形成結果 그 制度的 保障措置가 취해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으며, 政治·社會體制의 變化도 促進될 것으로 展望됨.

- 蘇聯의 경우는 經濟改革의 範圍는 擴大될 것이 確實하나, 改革의 深度는 中共에 비해 制限的일 것으로 展望됨.

- 그 理由는 社會主義 宗主國의 立場에서 計劃經濟原則을 拋棄하거나 自由市場 및 私有財產 制度를 導入할 경우 周邊 衛星國에 미칠 影響이 지대하고 窮極的으로는 社會主義 體制 및 自國安保體制的 崩壞를 超來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2. 北韓經濟 現實과 改革 可能性

가. 北韓의 對內經濟實態

(1) 經濟成長 鈍化趨勢

- 北韓의 經濟成長 역시 社會主義諸國과 마찬가지로 50年代의 高度成長以後 漸次 成長率이 鈍化되는 趨勢로 轉變
- 北韓의 經濟計劃期間別로 發表된 實績資料에 依한 國民所得 成長率은 前後復舊 3個年計劃(1954-1956) 期間中 年平均 17%, 1次 5個年計劃(1957-1960) 期間中 年平均 25%의 高度成長을 達成한 以後 60年代 1次 7個年計劃(1961-1970)부터 急激히 鈍化
- 工業成長率 역시 60年代 以前の 年平均 36~40.9%에서 61年代 以後에는 年平均 12.2~16.5로 鈍化
- 特히 2次 7個年計劃 期間中 北韓 GNP의 年平均 成長率은 4.5% 水準으로 評價되고 있음.

北韓의 70年代以後 經濟成長率 鈍化推移

(表 6)

經濟計劃期間	年平均 GNP 成長率 (%)
新 6 個年計劃 ('71-'76)	5.9
2 次 7 個年計劃 ('78-'84)	4.5
1985	2.7

資料：國內關係機關評價資料

(2) 產業構造의 不均衡

- 北韓의 產業構造는 50 年代 農業을 爲主로 한 1 次產業中心에서 60 年代 以後에는 重工業을 中心으로 한 2 次產業中心의 比重이 急激히 增大

社會 總生產額의 產業別 構成 變化 推移

(表 7)

期 間	社會總生產額	工 業	農 業	其 他
1946	100	23.2	59.1	17.7
1946-1960 平均	100	37.3	38.3	24.4
1961-1969 平均	100	60.0	21.2	18.8

資料：國土統一院「北韓經濟 統計集」1980.

○ 그러나 輸送, 通信 및 서비스分野 等 3次産業分野의 落後로 産業構造가 極히 不均衡한 狀態이며, 工業 內部構造에 있어서도 住民消費生活과 直結된 輕工業 部門 矮小

- 工業 總生産額中 生産手段 生産額과 消費財 生産額의 比重은 1946年의 52:48에서 1984년에는 59:41로 消費財部門 減小

* 特히 北韓은 生産財의 境遇와는 달리 消費財 生産額에는 去來稅가 包含됨으로 消費財 生産額은 相對的으로 高評價되고 있음.

- 工業 總生産額中 機械工業이 차지하는 比重도 1946年 5.1%에서 1977年엔 33.7%로 增加

(3) 內資動員의 限界

○ 國民 總 生産額의 配分에 있어서 投資率의 相對的 增加가 持續됨으로써 內資動員 增大에 限界 露出

- 1984年 消費와 蓄積比는 58:42로 分析됨.

(表 8) 國民總生產額의 消費蓄積 構成 變化 趨移

主要年度	GNP	消費	投資	在庫增加	海外純移轉
1960	100	79.7	21.1	0.1	△ 0.9
1970	100	67.3	29.7	4.6	△ 1.7
1977	100	63.0	30.0	5.0	△ 2.0
1984	100	58.0	35.0	5.0	△ 2.0

○ 特히 過多한 軍事費支出 負擔으로 因해 經濟開發에 必要한 內資動員 増大의 餘力을 喪失함으로써 資本不足 隘路 加重

- 北韓의 實質軍事費 支出 負擔은 GNP의 23% 以上, 豫算의 31% 水準

○ 80年代中 經濟沈滯로 因해 豫算 增加率도 鈍化 趨勢

- 85年 稅入增加率은 對前年比 4.3%, '86年 3.8% 等 '70年代의 平均 14% 보다 急激히 鈍化

(4) 貿易의 不振

○ 지나친 自立經濟 路線의 追求로 北韓經濟의 對外 依存度는 낮으나 반면 國際分業으로 얻을 수 있는 經濟的 利點을 喪失

- 經濟規模의 擴大에도 不拘하고 貿易依存度는 50年代 1次 5個年期間中 年平均 20.1%에서 2次 7個年計劃 期間中 17.3%로 減少

主要 期間別 北韓의 貿易依存度

(表 9)

期 間	貿易依存度 (%)
1954-1960 (前後復舊 및 4次 5個年計劃期間)	平均 20.1
1961-1970 (1次 7個年計劃期間)	// 19.2
1971-1977 (新 6個年計劃期間)	// 20.5
1978-1984 (2次 7個年計劃期間)	// 17.3

- 經濟開發에 必要한 各種設備 等 輸入 需要의 增大에도 不拘하고 輸出産業 基盤의 脆弱으로 因한 輸出商品 不足 → 輸出不進 → 外貨不足 誘發
 - 輕工業 落後로 因해 生産의 量的 不足 및 質的 落後
 - 低開發 段階에서의 機械工業 爲主 重工業 編重開發 結果, 質的인 面에서 先進國 製品과의 國際競爭力 喪失
 - 2次 7個年 計劃期間中 貿易赤字 持續

○ 따라서 北韓의 輸出入商品構造는 技術水準 및 加工도가 높은 商品은 輸入하는 반면 加工도가 낮은 製品을 輸出하는 典型的인 南北貿易(垂直貿易)構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1982年度 輸入商品構造는 化學製品 및 石油類 33%, 機械類 18.1% 非金屬鑛 8.2%, 輕工業製品 6.5%의 順
- 同年 輸出商品 構造는 鐵鋼 및 非鐵金屬 31.5%, 非金屬鑛物 13.2%, 農水產物 11.9%, 輕工業製品 7.4%의 順

(5) 技術水準의 落後

- 金日成 主體思想 等 이데올로기를 重視한 科學·技術 開發政策의 追求 結果로 基礎科學 및 產業技術의 向上에 失敗
 - 인센티브 不在로 因한 企業의 技術革新 蹉跌
- 科學技術理論의 對蘇聯依存도가 높고 西方先進諸國과의 技術情報 및 資料交換 不振으로 先進技術 導入與件도 未成熟
- 產業施設 老朽에도 不拘하고 外貨不足으로 因한 先進設

備導入 및 技術導入 不振

- 2次7個年計劃期間中 工場設備 自給率 98% 目標 設定
- 무리한 目標와 計劃 蹉跌로 인하여 아직도 電子 및 通信 分野 製品은 물론 대부분의 設備는 輸入에 依存

나.北韓의 對外經濟關係

(1) 對外經濟政策方向

-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은 社會主義諸國과의 貿易 및 經濟協力을 基本으로 自主權을 尊重하고 北韓과 經濟關係를 맺기를 願하는 資本主義 國家와도 貿易를 擴大해나간다는 基調를 採擇
 - 1967. 12. 最高人民會議 第4期 1次會議
- 70年代 新6個年計劃 推進 過程에서부터 實際로 日本 및 西歐諸國과의 通商 및 經濟協力 擴大에 注力
 - 西歐의 貿易信用과 銀行借款 等を 利用, 經濟建設에 必要한 「플랜트」 輸入를 增大시킨 結果, 外貨不足으로 76년부터 對西方延帶問題 誘發
- 80年代 2次7個年計劃 期間中 對西方 經濟協力 強化를 爲한 政策을 追求하는 한편 이를위한 關係法 制定
 - 1984. 4.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 議案으로 “南南協助와 對外 經濟事業을 強化하며, 貿易事業을 더욱 發展시킬데 대하여”란 政策을 採擇

- 1984. 9. “合營法”發表 이후 1985. 2. 合營法施行細則, 1985. 3. 合營企業所得稅法 및 外國企業所得稅法 發表등 後續措置 斷行

(2) 北韓의 對中·蘇 經濟關係

(가) 貿易關係

- 80年代中 北韓의 對外貿易總額에서 對中·蘇 貿易이 차지하는 比重은 54.5%以上으로 中·蘇는 여전히 北韓의 가장 重要的 交易對象國으로 되고 있음.

北韓의 對中·蘇 貿易比重

(表 10)

區分 期間	貿易總額	對中·蘇貿易	對蘇貿易	對中共貿易
1961-1969	100	65.9	44.3	21.6
1970-1979	100	54.6	35.3	19.3
1980-1985	100	54.5	35.3	19.2

- 그러나 北韓의 對中·蘇 貿易 比重은 漸次 減少되는 趨勢에 있는데, 이러한 狀況은 中·蘇는 勿論 東歐社

會主義諸國의 對西方貿易의 必要性 增大, 社會主義諸國
相互間 補完性 減少에 起因

中·蘇의 圈域別 貿易比重
(表 11)

區分 期間	蘇 聯		中 共	
	對共產圈	非共產圈	對共產圈	非共產圈
1960	73.0	27.0		
1965	68.8	31.2	31.3	68.7
1970	65.2	34.8	20.7	79.3
1975	56.3	43.7	17.0	83.0
1980	53.7	46.3	10.1	89.9
1985	56.1	43.9	7.4	92.6

- 1961年 第1次 7個年計劃이 始作된 以後 1985年 까지
25年間 北韓의 純貿易赤字 總額은 36.1億弗이며 그
中 對中·蘇 純貿易赤字 總額은 14.1億弗로 全體의
39.1%를 차지
- 期間中 對蘇 純貿易赤字 總額은 8.9億弗이며, 中共의
경우는 5.2億弗임.

- 따라서 北韓의 對中·蘇 貿易依存度は 期間中 54.5% 以上인데 比하여 貿易赤字 比重은 39.1%이므로 北韓의 對外貿易에 있어서 對中·蘇 貿易은 其他 諸國과의 貿易보다 相對적으로 北韓에 有利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利點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對中·蘇 依存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社會主義諸國의 商品이 質的인 面에서나 技術的인 面에서 相互間的 需要에 未洽한 問題點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社會主義諸國 經濟 開放化의 重要な 要素가 되고 있음.

(나) 對中·蘇受援(有·無償)關係

- 1949年부터 1985년까지 北韓이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提供받은 經濟援助(有·無償)總額은 最小한 14.8億 弗 以上으로 集計되고 있음.
- 受援額을 時期別(導入基準)로 보면 1950年代 까지의 期間中에 總 受援額의 39.2%, 1960年代에 9.5%, 1970年 以後 1985년까지 51.4%의 實績을 나타내고 있음.

- 北韓의 對 蘇 受援 總額은 約 12.5 億弗로 對中·蘇 受援總額의 84.5%을 차지, 北韓經濟의 對 蘇 依存 度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 對 蘇 受援總額中 借款을 포함한 有償援助額은 約 5.6 億弗로 有·無償援助 總額의 44.8%를 차지하 였고 無償援助(償還免除額 포함)는 約 6.9 億弗로 55.2%를 차지하므로서 無償援助의 比重이 높 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北韓의 對中共 受援 總額은 約 2.3 億弗로 對 中·蘇 受援總額의 15.5%정도이고, 對·中共 受援의 특징은 대부분이 借款 등 有償援助의 性格을 띠고 있다는 점이며 단지 6.25 戰爭중 受援額만이 戰後 協 定을 통해 償還 免除된 바 있음.

北韓의 對蘇聯 受援 實績

(表 12)

(單位：千弗)

區分 期間	無 償	有 償	備 考
1949.3-'50.6		53,000	○ '49-'50 년간 建設支援協定 의거 償還期間 3年, 年利 2%條件('49. 3.17)
1950.6-'53.7	143,250		○ 6.25 戰爭中 物資支援
1953. 9	250,000		○ 無償援助 協定('53. 9.19)
1956. 7	75,000	42,500	○ 援助協定('56. 7. 9)
1959. 3		125,000	○ 借款協定('59. 3.17)
1976		555,000	○ 經濟協調協定依據 年利 2%條件

* 美 CIA分析에 의하면 2次 7個年計劃 期間인 1978-1982年間 蘇聯의 對北韓 援助額은 總 6億 4,500萬弗로 1976년 朝·蘇經濟協調協定에 의한 5億 5,500萬弗보다 높게 評價되고 있음.

北韓의 對中共 借款導入 實績

(表 13)

(單位：千弗)

期間	區分	導入額	備 考
1950-'53		12,000	○ 6.25 動亂中 導入, 1953.11.23 無償 援助協定으로 償還 免除 措置
1958. 9		5,250	○ 1958. 9.27, 借款協定 依據 導入
1960.10		10,500	○ 1960.10.13, 借款協定 依據 1961 - '64 年間 導入
1970.10		200,000	○ 1970.10, 經濟 및 技術援助提供 協定에 依據 導入

(3) 北韓의 對日 經濟關係

- 日本과 北韓의 經濟關係는 雙方 民間 貿易을 基盤으로 하고 있으나 北韓은 84年 「合營法」發表以後 이를 資本 및 技術協力 次元으로 發展시키며, 雙方 政府間 協力關係 構築을 企圖하고 있음.
- 日·北韓 民間貿易은 1957年 9月 “日·朝 貿易協定”締結로 制度化된 후 1972年 1月에는 “日·朝 貿易 促進에 관한 合意書”를 採擇함으로써 維持 發展 되어 왔음.

- 最近 日本은 蘇聯·中共과 함께 北韓의 3大 交易國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蘇聯과 中共의 貿易 比重이 減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對日本 貿易 比重은 점차 增加되고 있는 것이 特徵임.

北韓의 對日 貿易 比重

(表 14)

區分 期間	貿易 總 額	對日 貿易 比重
1961 - 1969	100	6.1
1970 - 1979	100	12.8
1980 - 1985	100	18.4

- 1961년 이후 지금까지 北韓의 對日貿易赤字 累積 額은 約 14.6 億弗로 中·蘇 兩國에 대한 貿易赤字 總額 14.1 億弗을 上廻하고 있으며, 期間中 對外 貿易赤字 總額의 40.4%를 차지 하고 있음.

○ 1982년,北韓의 大城貿易商社는 日本企業과 3차례
에 걸쳐 鑛山開發, 輕工業製品生産, 農水産物 加工分
野의 合作投資 交渉으로 對日 資本·技術導入을 試圖

— 이중 히다찌社와 乾電池生産 技術提携에 成功

○ 1984年 「合營法」發表 以後 日本企業의 對北合作을
強力히 希望하고 있으나 在日 朝總聯 商工人 以外
日本企業들의 外面으로 實績 不振

— 1985. 9, 日本 난카이電鐵 會長 “가와까스 텐”
訪北時 金日成은 輕工業製品 및 工具類 生産分野,
農水産物 加工分野, 製鐵所 및 鐵道輸送部門 近代化,
干瀉地 開墾, 觀光호텔 建設 등 多様な 分野에서의
技術提携와 合作投資을 要請한 바 있음.

北韓과 朝總聯 商工人과의 合作推進 實績

(表 15)

合作日時	合作內容
1985. 2	樂園百貨店(地方에 31個 分店)
1985. 4	창광커피숍
1985. 4	大東江 自動車 綜合修理工場
1986. 4	朝·日 友好醫療 事業會社(김만유 病院)
1986. 8	朝鮮國際 合營總社 設立 合意 ('86.10.29 - 11. 3 發足)

- 日·北韓 經濟關係는 1986. 9, 日本 通産省이 1976년 이후 10年間 貸金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個 日本商社에 대해 約 300 億엔의 輸出 保險金을 支給함으로써 短期的인 面에서는 雙方 貿易關係를 沮害하는 要素로 作用할 것이 展望됨.

다.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

(1) 肯定的 側面(助長的 側面)

○ 經濟理論面

- “社會的 再生産의 合法則性”에 基礎한 “스탈린”型的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모델은 生産力의 發展보다 生産關係 生産關係 發展의 遲延으로 說得力 喪失
- 經濟의 效率性 低下에 의한 社會主義諸國의 成長 鈍化는 60年代 初半以後 社會主義 內部 經濟學者들 間에도 經濟體制問題가 批判과 反省의 對象이 되고 있음.
- 北韓 內部에서도 60년대 後半에 이미 一部 經濟學者들 사이에 論爭이 惹起

○ 經濟 現實的인 面

- 60년대 이후 産業構造의 不均衡, 生産性 鈍化, 資本不足, 技術落後 등 諸般與件의 惡化로 經濟成長의 急激한 鈍化를 示現, 先進 社會主義諸國의 前轍을 踏襲 하고있음.
- 經濟沈滯 脫皮를 위해서 對西方 貿易 및 協力の 必要性은 점차 增加되고 있는 바, 對西方 協力の 增

大와 效果提高를 위해서는 開放화와 함께 經濟改革은 不可避한 實情으로 되고있음.

○ 外部 環境的 與件

- 北韓, 알바니아와 함께 가장 教條的인 社會主義體制를 固守해 오던 中共이 '78년 이후 實用主義 路線으로 急施回, 經濟의 對外 開放화와 急進的인 改革을 斷行하고 있으며
- “고르바초프” 執權以後 蘇聯 역시 第27次 共產黨大會('86. 2)에서 蘇聯經濟의 回生을 위해 私經濟的 要素의 導入擴大, 國家干涉의 縮小 등 經濟改革 持續 立場을 闡明

○ 政治 社會的 與件

- 經濟의 外型的 成長을 통해 北韓 住民들도 絕對 貧困의 段階를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政治, 社會的 意識變化와 慾求增大로 보다 複雜한 管理對象으로 轉變
- 經濟規模의 增大, 技術의 進步 등에 따라 社會 各 分野에 專門知識階層의 增大와 技術官僚出身의

浮上

- 對西方 交流 增大로 外部世界的 새로운 情報 流入 量 增大
- 金日成의 年老와 관련한 權力構造의 變動 可能性에 따른 새로운 指導路線 擡頭 可能

(2) 抑止的 側面

- 金日成의 生存과 教條的 統治路線
 - 社會主義諸國의 經濟改革 背景에는 統治者의 性向이 가장 중요한 要素로 指摘되고 있는 바
 - 經濟改革의 필요성과 많은 肯定的 要因에도 不拘, 金日成 主體思想과 統治路線을 스스로 修正하기는 極히 어려우며
 - 따라서 比較的 合理主義的인 테크노크라트群에 있어서도 金日成 生存時에는 經濟改革 論議 自體에 限界性 內在
- 先行 經濟改革 國家의 否定的인 經驗 要素
 - 東歐 및 中共의 經濟改革 過程에서 擡頭되고 있는 物價, 失業, 所得分配의 不平等 問題 및 經濟事犯의

增加 등 소위 資本主義的 弊害要素에 대한 憂慮

※ 特히 北韓은 中共의 經濟改革 過程을 自身の 實驗 現場으로 觀察하고 있는 立場

○ 南北對決 構造와 政治, 社會體制 崩壞 憂慮

- 經濟改革이 隨伴하게 될 北韓 住民의 意識과 價値 觀의 變化는 보다 많은 自由와 權利要求 可能
- 이는 必然的으로 理念이나 社會體制變動을 誘發, 體制 崩壞의 危險性 增大
- 經濟의 對外開放과 함께 經濟改革을 推進하기 위해 서는 南北韓 緊張緩和를 통한 軍事費의 減縮 및 社會統制의 緩和 등 諸般與件 改善이 不可避하므로 住民統制 名分 喪失

(3) 政策變化 徵候

○ 對西方 協力增大를 위한 經濟의 對外開放化 試圖

- 經濟改革과 開放化는 不可分の 關係로 理解될 수 있는 바, 北韓은 70年代의 新6個年計劃 期間부터 對西方 貿易強化로 經濟開發에 필요한 플랜트의 延 拂 輸入 및 西歐銀行團 借款導入, 合作投資 誘致

등을 試圖

- 특히 80年代 6次黨大會('80.10)에서 對外貿易의 強化와 이를 위해 貿易을 多角化, 多樣化 하며 “實用第一主義”原則을 철저히 지킬 것을 強調
 -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84. 1)에서는 6次黨大會의 貿易政策 具現을 위해 특별히 對外貿易 強化策을 發表, 資本主義 國家와도 貿易과 經濟協力을 增大시킨다는 政策 表明
 - 1984年9月에는 對西方 資本과 技術導入을 위한 「合營法」을 發表, 對西方 合作投資 誘致를 위한 法的措置 講究
- 1973年부터 經濟管理 改善의 一環으로 新 地方豫算 制를 導入, 中央計劃과 豫算負擔의 縮小 및 地方의 豫算機能 強化 措置 斷行
- 行政管理機構 面에서도 金日成은 黨政治局 會議를 召集('81.8.22)하고 中央과 地方의 經濟管理機構에 대한 一大改革을 斷行, 既存 8個 委員會, 29個部 (總 37個 部·會)중 30個 經濟關係 部處를 統廢合 12個 委員會, 15個 部로 縮小調整(27個

部·會)

- 1978. 2次 7個年計劃 着手와 함께 工場 企業所의 獨立採算制 實施를 強化하고, 1980. 6, 全國地方産業일군 大會에서 金日成은 小規模의 地方産業 工場까지 철저한 獨立採算制의 實施를 指示
- * 1984. 6, 부터 事務機關을 除外한 非生産的 部門의 機關이나 企業所까지 完全 獨立採算制 및 半獨立採算制로 管理 運營토록 措置('85. 6.16, 朝鮮中央放送)
- 1980. 6, 地方産業(消費財工業) 工場의 일부 生産品에 대해서는 地方自體의 價格調整을 許容
- 1985. 8, 勞動新聞은 論說을 통해 企業管理面에서 獨立採算制, 價值, 價格機能, 物質的 刺戟 등 소위 “經濟的 槓杆”의 積極的 活用을 主張함으로써 經濟改革의 推進을 위한 政策的인 徵候가 表出됨.

(4) 展 望

- 北韓은 對內的인 經濟狀況 變化와 對西方 經濟協力の 必要性 및 周邊 社會主義諸國의 經濟改革 趨勢 등

對內外 與件上 長期的인 面에서 經濟改革의 推進은 不可避한 狀況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短期的인 面에서 社會主義諸國의 經濟改革 推進에 있어서는 최고 統治權者의 性向이 가장 중요한 變數로 作用하고 있는 바, 北韓은 主體思想과 教條的인 指導路線으로 인하여 金日成 生存時에는 부분적인 管理改善의 限界를 벗어날 可能性은 稀薄함.
- 현재 進行中인 權力承繼 作業이 完了되고 金日成이 死亡할 경우는 實用主義 路線의 選好에 따라 보다 深度있고 廣範한 經濟改革이 推進될 것으로 展望됨.
 - 새로운 指導者의 象徵造作을 위해서는 沈滯된 經濟의 活性化와 住民生活 向上問題는 가장 魅力的인 素材가 될 것으로 判斷됨.
- 北韓이 經濟改革 斷行時 採擇할 모델은 次期 執權者의 性向과 北韓의 對中·蘇 經濟關係의 變化에 따라 左右 될 可能性이 있음.
 - 金正日 執權體制 定着時 中共改革 모델 採擇이 可

能하나 集團指導體制 및 金正日 이의의 軍部 및
테크노크라트가 執權時 오히려 蘇聯式 管理改善 모
델 採擇 可能

3. 北韓經濟 狀況變化와 統一與件

가. 經濟改革과 理念 및 政治·社會體制 變化

(1) 헝가리 事例

(가) 헝가리 共産黨의 理念定向 變化

- 新經濟 메카니즘 導入以後 헝가리 共産黨의 理念定向에는 많은 變化 招來
 - 1975年 第11次 黨大會에서 “카다르”는 古典的 二元論의 教條性 克服努力을 闡明하였는 바 “黨의 政策은 狹小한 黨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勞動階級 및 全體 勤勞人民의 利益을 代辦하고 黨은 이들 諸 利益을 認定, 原則的 社會利益의 限界內에서 그 實現을 考慮할 것이라고 언급
 - 第12次 黨大會에서 勞動組合은 물론 非 “마르크시스트”, 宗教人 및 小數 民族 등의 諸 利益을 公式 認定
- 따라서 헝가리 共産黨은 公式的으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基本的 理念體系를 表明, 階級

없는 社會로의 轉移를 拋棄하지 않고 黨의 理念的 指導性を 繼續 強調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社會內的 多元的 諸 利益을 認定하고 近代化 目標와 實用主義路線을 追求하며

- 民族主義와 共產主義 및 國際主義와의 調和를 摸索해 왔음.
- 이러한 黨 理念路線의 非教條性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속에서 表出되고 있음.

(나) 政治體系의 變化

- 헝가리 經濟改革은 政治體系變化에 衝擊要素로 作用, 政治的 民主化를 促進하였음.
- 따라서 憲法 및 關係法の 改正을 통해 社會的 出身이 나 政治的 定向과는 無關하게 民主市民으로의 地位가 浮上되고
- 官僚體系의 變化는 물론 政治過程의 懸隔한 民主化와 黨의 構造 및 機能의 變化를 招來하였음.

○헝가리 政治體系的 變化內容

區 分	'60年代末 ~ '70年代初	'80 年 代
憲法體系 및 政治過程의 變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民權 擴大 ○ 議會機能 強化 ○ 選舉過程 改革 ○ 地方政治의 活性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議會機能 大幅 改革 ○ 選舉過程 大幅 改革 ○ 地方評議會 機能 大幅 強化
黨의 構造와 機能變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權限委任 · 分權化 ○ 테크노크라트 臺頭 ○ 實用主義, 爭點 · 定向的 政策 接近 ○ 黨의 社會的 構成 變化 ○ 制限的 多元主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의 開放化, 輿論 收斂을 大幅 強化

(다) 社會體系的 變化

- 新經濟 메카니즘의 導入과 함께 社會體系는 階級
分化現象과 上向移動性的 減少傾向 등 變化를 隨伴
— 經濟, 技術 엘리트의 相對的인 社會的 地位 向上
— 勞動者, 農民 등 社會主義 基本階級の 上向移動
減少

- 集團利益의 表出과 社會主義的 多元主義 臺頭
 - 1970年 以後 勞組가 漸次 壓力集團으로서의 機能 遂行
 - 1978年 以後 改正된 勞組法典은 企業內 意思決定에 勞動者 參與權을 明示
 - 1980年代 進入以後 國家와 主要 利益集團間의 關係가 制度化되고 補完的인 關係로 發展

- 國家 - 社會間에 意思疎通 活性化
 - 1970年 以後 미디어를 통한 輿論의 壓力과 社會的 集團의 影響力이 政治·社會的 意思疎通 過程에서 크게 強化

- 開放的 知性文化의 擴散
 - 東歐諸國中 가장 自由롭고 開放的 雰圍氣로 知性文化가 擴散됨.

(2) 社會主義 諸國의 一般的인 傾向

- 經濟改革이 共產主義 理念 및 政治·社會體制 變化에 미친 影響은 各國이 推進한 經濟改革의 深

도와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一般的으로 볼때, 公式的으로는 經濟改革과 關聯,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基本 理念體系의 不變을
表明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레
닌”主義 理念의 教條性을 緩和시키는 傾向이 두
렷함.
 - 中共의 경우, 黨 第12期 3中全會議(’84.10)
決定은 “마르크스”主義의 基本原理를 拋棄하는
것이 아님을 明示
 - 그러나 ’84.12以後 人民日報는 數次에 걸쳐
“마르크스·레닌”理論의 非現實性을 批判하고
이의 새로운 解釋을 通해 資本主義 經濟方式의
導入을 合理化
- 헝가리의 경우 經濟改革은 憲法體系 및 政治過程
의 變化, 黨의 構造 및 機能 變化를 隨伴하여 政
治體系 變化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으나, 中共의
경우는 아직도 이 段階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마르크스·레닌”主義 理念의 教條성이 緩和될 경우 이는 結局 政治體系의 變質을 促進하게 될 것임.

- 經濟改革은 社會的인 階級の 分化, 社會的 多元主義, 國家 - 社會間 意思疎通의 活性化, 開放的인 知性文化의 擴散等 開放化와 民主化를 促進하는 方向으로 作用하고 있음.
- 結局 社會主義諸國은 經濟改革의 推進으로 因해 共產主義 理念, 政治·社會體制의 變化間의 逆動的인 相互衝擊作用으로 인해 全體的인 體制變化를 加速化시킬 것으로 展望.

나. 對外經濟協力과 外交的 與件變化

(1) 中·蘇의 對西方協力 增大

- 社會主義諸國은 '60年代 以後 經濟改革 追求와 함께 東·西貿易과 相互經濟協力이 漸次 增大되고 있음.

○ 中·蘇의 경우도 對西方 資本·技術의 導入을 통한 自體 經濟開發이 積極的으로 推進되고 있는 바,

— 蘇聯은 유럽地域의 地下資源減少에 따라 우랄山 脈 移動의 시베리아開發과 加工基地로서의 原 東地域 開發을 위해 日本 등 西方諸國으로부터 設備 및 資本導入을 追求하고 있음.

○ 中·蘇의 經濟的인 對西方 協力增大는 相互 政治 的關係 變化의 主要한 要素로 作用하게 될 것이 며, 特히 中·蘇의 對內經濟狀況은 北韓의 對中· 蘇 經濟關係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임.

○ 한편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演 說('86.7.28)에서 밝힌 바와 같이 原東地域의 經 濟開發을 통한 아시아-太平洋國家로서의 活動領域 을 增大시킬 것이 確實時 되므로 南北韓의 外交 的 與件이 急激히 變化될 可能性이 있음.

(2) 北韓의 對中·蘇 및 對日關係

○ 北韓은 1985年 12月以後 蘇聯과의 經濟協力關係

를 強化함으로써 軍事·外交的인 密着과 함께 經濟의 對蘇 依存的 外交路線을 追求하고 있으며

- 中共의 對美·日 接近趨勢에 따라 北韓·中共關係는 表面上의 血盟關係와는 달리 內面的으로는 葛藤關係가 보다 深化될 수 밖에 없는 趨勢이며, 最近 蘇聯의 對中共 戰略은 몽고, 北韓, 인도지나, 印度 등과의 關係強化로 中共 牽制網 構築 徵後가 濃厚하며, 따라서 北韓·中共關係의 疎遠化가 豫想됨.
- 한편 日本은 強力한 經濟力을 背景으로 蘇聯, 中共, 北韓 등이 공히 經濟協力強化를 追求하는 立場에 있으므로 對共產權에 대한 影響力은 더욱 強化될 것임.

다. 韓半島 統一與件 變化展望

(1) 南北韓 經濟力變化와 統一與件

- 向後 南北間 經濟力의 隔差는 더욱 深化될 것이며, 따라서 南北關係는 時間이 經過할수록 韓國이 主導權을 掌握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될 것으로

展望됨.

- 韓國은 經濟力을 바탕으로 한 軍事·外交力量 伸張
- 南北韓 住民生活水準의 隔差 深化

○ 北韓은 經濟力의 隔差挽回를 위해 實用主義路線을 採擇함으로써 對南戰略이나 經濟開發戰略의 修正을 試圖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向後 南北關係는 現東·西獨關係와 類似하게 發展 可能

- 軍事費 減縮을 위한 對南 軍事緊張의 緩和 可能
- 對南 武力赤化보다는 韓國內部革命 誘發에 注力

(2) 北韓의 對外經濟關係와 統一與件

○ 北韓은 새로운 經濟發展을 위해 經濟의 對外 開放을 擴大하고 對中·蘇 經濟協力の 限界에 따른 對西方 經濟協力 強化를 本格化할 것으로 展望

- 3次7個年計劃 期間中에는 蘇聯의 經濟支援을 主軸으로 對日 接近 強化

○ 中共은 北韓·蘇聯間의 關係密着을 沮止하기 위해

對北 經濟支援을 強化하려고 努力할 可能性은 있으나 自體의 現代化推進上 對北經濟支援에는 限界가 있으며, 結局 北韓·中共間 葛藤關係는 深化될 것이 豫想되어 韓國의 對中共關係 改善與件은 好轉될 것이 展望됨.

- 한편 北韓이 經濟開發에 必要한 資本·技術의 導入을 위해 日本 및 西方諸國과의 經濟協力이 增大될 경우 韓半島 緊張緩和와 南北交流 등 關係改善에 대한 西方諸國의 影響力이 漸次 增大될 可能性이 있으며, 이러한 與件의 變化는 결국 統一與件 改善에 肯定的으로 作用할 것임.

(3) 北韓의 經濟改革推進時 統一與件

- 金日成 死後 北韓 統治集團이 實用主義路線에 로의 旋回로 經濟改革에 着手하게 될 경우 長期的으로는 北韓도 他 社會主義諸國과 같이 共產主義 理念의 教條性이 多少 緩和되고, 政治體系 및 社會體系的 變化는 隨伴하게 될 것이나 南北間의 理念 및 體制的인 對決構造로 인해 變化의 幅이나 深度는

크지 못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變化는 北韓指導層이나 住民의 價
值觀 및 意識의 變化를 反映하는 것이므로 南北
關係 妥結에 있어서 理念指向的이기 보다는 現實
認定的인 雰圍氣를 造成하게 되므로 統一與件은
보다 好轉될 可能性이 있음.

4. 統一政策의 考慮要素 및 政策方向

가. 基本的인 考慮要素

- 社會主義諸國은 經濟改革의 推進에도 不拘하고 共通的으로 共產主義 基本理念이나 原則을 拋棄하지는 않고 있으며, 따라서 資本主義的 市場經濟要素의 導入이 곧 資本主義 社會로의 履行을 뜻하는 것은 아님.

一 統一政策 및 戰略樹立에 混亂 惹起 可能

- 中·蘇 및 北韓은 공히 그들의 經濟開發 推進을 위해 對西方 經濟協力 增大 追求가 不可避한 狀況이며, 그 結果 中·蘇·北韓의 相互關係에서 갈등이 深化될 可能性이 농후한 반면 이 地域에 대한 日本의 役割이 增大될 것임.
- 北韓과 日本의 經濟協力關係의 發展은 그것이 短期的으로는 韓國에 不利한 與件으로 作用할 수 있으나 長期的으로는 이러한 狀況을 肯定的으로 利用할 價値가 있음.

- 向後 南北關係面에서는 北韓이 全般的인 國力의 對南 劣勢化로 直接的인 武力赤化 戰略路線은 緩和될 可能性이 있는 반면, 北韓은 韓國內部的 階層間 갈등관계를 利用한 內部革命 誘發에 戰略이 集中될 것임.

나. 政策方向

- 北韓의 經濟狀況 및 周邊 社會主義諸國의 經濟狀況 變化를 積極 利用하기 위해서는 對內的으로 理念的 基礎이 堅固化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北韓의 變化를 積極的으로 誘導해야 할 것임.
- 韓半島 平和定着과 交叉承認의 實現을 위해서는 段階的 交叉接觸 方案으로 中共과 日本을 積極 利用하는데 外交力量을 集中할 必要가 있음.
 - 對 中共關係에 있어서는 中共의 對北 立場을 考慮, 성급한 政治的 關係改善 努力보다 經濟 및 文化的 交流를 深化시키고 北韓·中共關係에 葛藤深化時 政治的 關係 改善을 實現

- 日本의 對北 經濟協力關係를 默示的으로 認定하여
北韓의 社會開放化를 促進하고, 北韓이 日本과의 政
治的關係 改善要求時 韓國·中共間 外交的關係·改善
으로 連繫
- 友邦諸國과의 企業間 協力을 通해 中·蘇의 經濟開發
에 合作進出하는 方安등을 模索해야 할 檢임.
 - 蘇聯의 시베리아 및 원동지방 經濟開發 參與
 - 中共의 現代化와 關聯, 經濟的 進出強化
- 結論的으로 장차 南北關係는 時間이 經過할 수록 我
側에 有利하게 展開될 展望이므로 直接的인 南北關係
改善 努力은 持續하되 周邊情勢 變化를 利用하여 迂
廻的인 接近方法에 關心을 提高시킬 것이 要望됨.